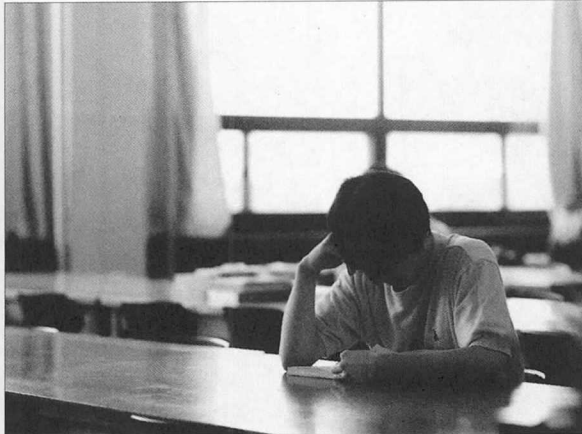


독서광을 정신분석한다

책을 자아와 공감하는 대상으로 삼는 독서광들

김현수 | 사느기쁨 신경정신과 원장



진정한 독서마니아는 진리를 추구하거나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사람들이다. 사진은 도서관에서 독서삼매에 빠진 사람.

독서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는 진짜 독서광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강박적인 지식욕과 소유에 대한 탐욕은 이미 책의 노예가 됨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진정한 독서마니아는 책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는 아름다운 중독자며, 자신만큼이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무엇인가에 광적으로 빠져드는 것은 한편으로 부러움을 낳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광적인 것이 지나친 집착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니아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광적인 몰두가 성질을 달리하면 다른 이름이 붙게 된다. 정신의학 영역에서는 이런 병적인 집착과 몰두를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충동조절장애(Impulse-control disorder)라고 보기도 하며, 때로는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disorde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심리적 보상에 따라 각기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아마도 불안일 것이다.

불안과 즐거움이 독서광 판가름하는 기준

만일 '무늬'는 독서광인데 그 광적인 열의가 불안으로부터 기인한다면 이는 정신의학의 영역에서 검토해봐야 할 문제다. 독서를 통해 추구하는 바가 강박적인 지식욕이라든지, 소유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경쟁에 대한 우월감이라든지 하면 이는 이미 책의 노예가 되기 시작함을 알리는 것이다. 물론 책을 읽는 것이 술을 마시거나 도박하는 것과는 달라 사회적으로 비난하거나 그 행동을 제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책의 노예가 돼 책에서 손을 놓을 수 없는 생활을 지속하는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대다수의 이런

사람들은 책읽기의 지겨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책간수하기'의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강박적인 사람들은 책을 꽂아둬야 할 위치나 순서에 연연하기도 하고, 소유욕에 불타는 사람은 소장한 책의 권수에 시퍼렇게 달아오르고, 경쟁적인 사람은 책에 담긴 지식의 인용에 애를 태우며, 쾌락적인 사람들은 자극적인 신간에 몰달아 할 것이다.

이런 가짜 독서광들을 진정한 독서 마니아들과 구분하기란 어렵지 않다. 독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간단한 질문이 이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독서 마니아는 대부분 진리를 추구하거나 즐거움을 향유하려는 이들이며 이는 그 어떤 불안과도 궤를 같이 하지 않는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독서삼매경에 빠져드는 것과 불안함과 의무감에 의해 책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책은 이상화된 또 다른 나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책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떨어지려 하지 않는 것일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비결 뒤에 따라다니는 흔한 수식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서광이다. 정신과의사인 프로이트도 대단한 독서광으로 알려졌고, 뉴턴이나 프랭클린 등의 위인을 비롯해 우리 주변의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광이라고 알

려져 있다. 책이 주는 가치에 대해 필자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상기한 위인들뿐 아니라 많은 범인들에게 책은 어머니고 아버지이자 애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한 분야인 자기심리학에서는 사람이 평생 거울과 같은 자기대상(mirroring self-object), 이상화 자기대상(idealizing selfobject), 쌍둥이 자기대상(twinship selfobject)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책은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를 검증해주면서, 즉 내 생각을 비춰주고 또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해준다(mirroring, 어머니). 또한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듯이 책은 내가 가야 할 이상적 지침을 제시해준다(idealizing, 아버지). 아울러 책을 통해 우리는 공감하고 나와 똑같이 느끼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twinship, 애인).

세상을 살면서 이런 자기대상으로서 구체적인 사람이 존재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책이 바로 그 대상이 돼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사람만큼이나 중요하게 책을 다루는 것이다. 독서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홀룡해지는 것은 아마도 이런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공자는 무엇이든지 과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과연 책을 통한 깨우침도 그럴까? ●